



DUCK'S NEWS

기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면역력 오리고기의 재발견



황인철 서울의료원 과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인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 면역력을 길러 인체 내부에서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닥터세프 황인철 서울의료원 과장이 말하는 오리고기

체내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재발견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리고기다.



높은 연령대일수록 치명적...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오리고기

3월 22일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연령대별 치명률은 80세 이상(10.46%), 70대(6.22%), 60대(1.50%) 순으로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질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오리고기에는 비타민A, B, 레시틴 등 항산화 효과와 노화 예방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오리고기의 레시틴 성분은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미세먼지에 노출된 폐를 지키는데 효과적인 성분이다.



오리고기의 불포화지방산! 혈관건강 부담 없이 면역력 UP!

육류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잦은 섭취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오리고기는 혈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육류이다. 오리고기의 불포화지방산은 오리고기의 연관검색

어로 따라 붙을 정도로 대표적인 성분으로,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는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는 올려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체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효능이 있다.



닥터 세프 황인철 박사가 소개하는 오리고기 레시피

오리고기라고 해서 거창한 보양식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 쉽게 활용 가능한 오리 요리를 평소 식사시 자주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집에서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오리요리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한다.

오리고기 김치찌개



★ 오리고기 김치찌개

- 1 김치는 소를 털어낸 다음 3cm 길이로 자르고 김치국물은 따로 준비한다.
- 2 양파는 도둑통하게 채 썰고, 대파와 고추는 어슷하게 썬다.
- 3 냄비에 김치와 김치국물, 오리살, 물을 넣고 끓인다.
- 4 양파와 대파, 고추, 다진마늘, 액젓, 후춧가루를 넣고 김치가 푹 익도록 끓여 완성한다.



오리고기 더덕볶고기



★ 오리고기 더덕볶고기

- 1 오리살은 종이타월에 얹어 핏물을 제거한 다음 5cm 폭으로 썬다
- 2 더덕은 껍질을 벗긴 다음 어슷하게 썰고, 당근은 편으로 썬다
- 3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팽이버섯은 밀동을 제거한 다음 반으로 썬다.
- 4 양념장 재료를 섞어 불고기양념장을 만든다
- 5 볼에 오리고기를 넣고 양념장을 넣어 섞는다
- 6 뚝배기에 오리고기를 넣고 끓이다가 더덕과 당근, 양파, 대파, 팽이버섯을 넣어 끓이면 불을 끈다

▶ 중앙일보 [2020. 4. 13]

DUCK's NEWS

부드러운 식감 감칠맛 일품인 6천원짜리 오리탕

KBS 2TV 생생정보 '리얼 가격의 왕' 코너서 소개



4월 3일 저녁 KBS 2TV '생생정보' 속 코너 '리얼 가격의 왕'에서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단돈 6천원짜리 오리탕 정식집을 찾았다.

이날 방송에서 오리탕을 맛본 손님들은 "맛이 정

말 좋다. 이 가격에 국내산 오리탕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호평했다.

주인장은 "포천 오리 농장에서 발골해 남은 뼈와 고기를 이용해 손님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밝히며 "오리탕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을 넣고 압력밥솥에 넣어주면 깊은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오리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들에게 오리탕을 대접하기 전 들깨가루 속피를 올려 구수한 맛과 감칠맛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 [2020. 4. 3]

코로나19 피해 식육포장처리업체 자금 지원

매출 10%이상 감소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육포장처리업체(1차 육가공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돕기 위한 한시적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최근 확정했다.

전체 예산규모는 368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생산자 2%·일반업체 3% 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식육포장처리업체다. 또 반드시 국산 축산물을 취급해야 하며, 지난해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운용평가 결과가 '적합'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금의 사용 용도가 국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과 기타 운영자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입 축산물 구매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최근 소비부진으로 식육포장처리업체 중에선 공장 휴무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급히 예산을 편성했다. 자금집행의 시급성을 고려 이달부터 바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농민신문 [2020. 4. 8]

May 2020

오리고기 냉동 비축량 역대 '최대치'

3월기준 632만마리...식당수요 급감 탓

오리고기 냉동 비축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어 소비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도축장을 소유한 전국 계열화업체 7곳의 냉동 오리고기 비축량은 632만마리를 기록했다. 이는 오리사육 휴지기제에 대비해 처음 오리고기를 비축했던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비축량이 늘어난 시기가 3월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3월은 원래 따뜻해진 날씨에 따른 날들이 소비 증가로 비축량이 감소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3월 냉동 비축량은 540만6,000마리로 같은 해 2월보다 3만8,000마리 줄어든 후 4월엔 477만5,000마리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 3월 비축량은 2월보다 되레 68만마리 늘어난 데다 앞으로도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여파로 산지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3월 오리고기 1kg당 산지값은 1,365원으로 업계가 추정하는 1kg당 생산비인 1,890원보다 525원 낮다. 이달 8일 산지값도 1,352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식당수요 급감을 비축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오리고기는 전체 생산량의 50~60%가 외식으로 소비된다"며 "하지만 식당 납품량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70% 넘게 줄어든 데다 대형마트 납품도 40% 가까이 줄어 냉동 비축량이 갈수록 늘는 중"

이라고 토로했다.

오리 사육농가들은 냉동 비축량 증가로 인한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97% 이상 계열화가 진행된 오리산업의 특성상 업체의 매출 감소는 농가의 사육수수료 인하와 입식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벌써 일부 계열화업체는 사육수수료를 기존보다 2~3% 낮추고, 사육을 1회전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오리고기 수율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다양한 조리법을 고안하고, 새로운 육가공제품을 개발해 가정 내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오리고기를 사서 조리할 수 있도록 부분육시장을 활성화하려 한다"며 "지난해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오리고기 한마리를 모두 튀김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줄 것도 요청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농민신문 [2020. 4. 10]



DUCK'S NEWS

정읍시축산연합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500만원 기탁

정읍시축산연합회(회장 이선숙)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 성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읍시축산연합회는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읍시지부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 ▲대한양계협회 정읍시지부 ▲한국양봉협회 정읍시지부 ▲한국오리협회 정읍시지부 ▲



전국흑염소협회 정읍시지부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읍시지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인의 자긍심 고취, 축산냄새로 인

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후원과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전민일보 [2020. 4. 20]

축단협, 신임회장에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추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신임 회장에 하태식 대한한돈 협회장이 선출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4월 21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축단협 회장에 단독 입

후보한 하태식 한돈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이홍재 양계협회장, 김용철 육류유통수출협회장이 각각 선출됐으며, 감사는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과 석희진 축산경제연구원장이 각각 유임됐다. 하태식 신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환경과 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 “축산농가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축산업에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0. 4. 21]

May 2020

전남농협, “오리데이! 오리고기 먹는 날” 소비촉진 행사



농협전남지역본부는 5월 2일을 맞아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27일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리 데이! 우리 오리고기 먹는 날’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오리고기 소비 급감, 산지가격 하락 등 어려움에 처한 오리농가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국산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했다.

최근 오리 산지 가격은 3월 1,319원/kg으로 전년 동기(2,575원) 대비 48.7% 하락, 평년(1,671원) 대비 21% 하락했으며, 냉동재고 물량도 소비부진으로 1월 503만 수, 2월 560만 수, 3월 630만 수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 경영 위기가 고조되는 실정이다.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비타민A 함량 1위, 불포화지방산 함량 1위로 면역력 대표 건강식품이다.

△ 5월 1일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원기회복에 좋은 오리 백숙, △ 5월 2일 오리데이는 무조건 오리고기, △ 5월 5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오리 브로콜리 떡볶이, △ 5월 8일 부모님 진지상에 오리 단호박찜, △ 5월 15일 스승의 은혜에 보답으로 오리고기 무쌈말이 도시락, △ 5월 21일 부부와 함께 오리 오븐구이 등 가정의 달 5월에는 오리고기로서 사랑과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협전남본부 김석기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농축산물이 소비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 식량을 책임지는 농가를 돕기 위해 착한소비 부탁드리며, 전남농협은 ‘구내식당 오리고기 메뉴 편성 운동’ 등 지속해서 소비촉진 행사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2020. 4. 27]